

마음발 형성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서클 중심의 인성수업 개발

유승민 샘물중고 교감

유재봉 성균관대 교수

안은경 샘물중고 교사

논문 초록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창작과 관계, 소통의 욕구를 제한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의 교육은 관계와 협력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교육 방안으로 노력 활동과 서클(회복적 대화)을 들 수 있다. 학생들은 농사와 목공과 같은 노력 활동을 통해서 생명의 원리, 자연의 순환, 자원의 분배를 이해하면서 좋은 마음이 형성되는 원리를 깨닫고 정의와 공정이 근간이 되는 경제관념을 정립한다. 학생들은 또한 수업의 과정마다 정기적인 서클 모임을 통해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기를 실천한다.

본 연구는 코로나 시대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인성 역량의 본바탕이 되는 마음발 형성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인성수업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학생들은 농사와 목공과 관련된 성장과 분배, 생산과 나눔 활동을 통해서 노동의 가치와 공존을 위한 토대를 정립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서클 모임은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경험하는 작은 생태계로 작용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노력과 서클 중심의 인성수업을 개발하여 수업을 실시한 후, 심층면담과 관찰법을 통해 수업 효과를 탐색한다.

제시어: 노력, 서클(회복적 대화), 마음발 교육, 공동체, 인성수업

I. 서론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Pandemic)은 미래교육 운동에 제동을 거는 브레이크이면서도 학교 시스템의 변화를 촉진하는 가속 페달과 같은 역할을 한다. 같은 공간에 모여서 함께 배우는 전통적 수업 방식은 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학습으로 대체되었지만, 온라인 학습이 미래교육의 청사진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영상 편집을 위한 장비, 일정 속도 이상의 네트워크, 그리고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컴퓨터만 있으면 원격 수업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충족되지만, 이로 인해 미래교육이 앞당겨졌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소박한 생각이다. 오히려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식 수업이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 비대면 수업과 사회적 거리두기는 프로젝트 수업이나 협력 학습에 제동을 걸고 있으며, 이런 방식은 학생들로 하여금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저하시키고 자아 인식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도 떨어지게 한다.

미래교육의 불투명성은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과학 기술에 기대어 미래를 예측하는 학자들은 인공지능을 탑재한 사이보그가 복잡한 정보 처리 능력만이 아니라 인간의 고유 영역인 이성과 마음의 작용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그러나 인간의 감정과 정서가 두뇌와 신경계에서 일어나는 전기·화학적 반응과 연결되는 기제를 설명하지 못하고 마음의 실재도 규명하지 못한 채 개인이 고립된다. 이러한 오만과 한계는 마음의 현상과 징후에만 주목한 결과이다. 학교는 학생들의 성품과 습관이 자랄 수 있는 본바탕에 주목하여 개인의 마음발이 다져질 수 있는 교육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사태는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위기가 교육의 본질이 무엇이고,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이 무엇인지 탐색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원격교육이 진행되는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스스로 배움에 참여하려는 자율성과 주어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변혁적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 제시하는 역량의 의미는 개인과 사회의 질(Well-Being)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역량이란 지식과 기능, 태도에 더해서 가치를 인식하고 창출하는 능력이다. 역량 중심 교육은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es)프로젝트가 정의한 대로 '여러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사회적으로 이질적인 집단에서의 상호작용 능력',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이다(이근호 외, 2017: 10). 이런 관점에서, 창의적 활동과 소통 능력, 자율성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과 공간의 개발은 미래교육과 인성교육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도라 할 것이다.

코로나 상황은 환경과 생태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심어 준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요 감염 경로는 야생 동물을 통한 전파이다. 생태계 위기는 인간이 이룩한 기술과 물질,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발전과 더불어 자라난 욕망에 기인한다. 무분별한 자연 개발과 섭취가 정상적인 생태 환경을 무너뜨리고 인간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처럼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공통된 기억은 환경과 생태에 대한 입장을 보호와 관리에서 공생과 공존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생태적 감수성과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셈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코로나 이후의 교육은 창작과 관계, 소통이라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면, 농사와 목공과 같이 협력적 노작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생산적인 창작 행위를 통해 실패와 성공, 한계와 가능성을 경험함으로써 주체적인 마음을 형성하고 동료들의 다양한 선택과 반응을 목격한다. 교사와 학생은 이렇게 형성된 마음들을 가지고 서로 배우고 동등한 힘을 가진 안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참여하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좋은 습관과 성품의 본바탕이 되는 마음발 형성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인성수업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공생과 공존을 위한 생태주의 수업과 몸의 활동을 강조한 노작 수업을 개발한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의 서클 모임은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경험하는 작은 생태계로 작용한다. 학생들은 농사와 목공이라는 성장과 분배, 생산과 나눔 활동을 통해서 노동의 가치와 일의 존엄성을 정립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접 손으로 수고하여 결실을 맺으면서 좋은 마음의 형성이 이와 비슷한 과정임을 깨닫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지속가능한 교육 환경을 구성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에 놓인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노작과 서클 중심의 인성수업 효과를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파악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작과 서클을 통한 교육

코로나 사태는 역설적으로 생물학의 하위 분야로 시작된 생태학과 그에 대한 교육적 관심을 제고한다. 생태학은 19세기 후반 헤켈(Haeckel)이 생물과 환경의 관계를 생물학의 범주에서 다루기 위해 사용한 용어로서, 생태교육으로 확대되면서 인간 삶의 기본 요소인 경제, 분배, 공존을 포함한다. 생태교육의 관건은 자연을 지배하고 이용하려는 시각을 경계하고, 자연과 인간의 경계를 이원화하는 시도에 맞서 비판적 사고와 참여 의식을 배양함으로써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다.

생태교육은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인간의 기초적인 경제 활동이었던 노작 활동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협력하는 태도와 성실하고 끈기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무언가를 키우고 가꾸는 활동은 자신이 거대한 생태계에 속해 있음을 인식하고 삶에 대한 관조를 이끌어 낸다. 농업, 특히 텃밭을 직접 가꾸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파종과 경작, 결실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고 식물을 가꾸는 과정에서 자연의 순환을 이해하고 생태적 감수성을 기른다. 노작의 또 다른 활동인 목공은 친환경적인 재료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자연의 순환을 돌아볼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농사와 목공은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고 정착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서로 나누고 도와주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었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창작과 관계, 소통의 욕구를 제한하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의 교육은 관계와 협력의 가치를 다시 회복하는 일이어야 한다.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교육에서 대화는 핵심요소이다. 서클은 둥그렇게 모여 앉아 공동체가 대화하는 방식이다. 서클은 존중하며 말하고 듣는 공간이며 세상의 모든 존재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론을 바탕으로 한다. 동서고금의 문화에서 발견되는 서클의 대화방식을 자연과 생태계와 상생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북미 선주민과 아프리카 부족이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는 것은 서클의 세계관과 생태적 접근과의 연관성을 잘 보여준다. 서클을 대표하는 일곱 가지 핵심 신념은 다음과 같다(Boyes-Watson & Pranis, 2015: 39-46).

첫째,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선하고 지혜롭고 강한 자아가 있다. 둘째, 이 세상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셋째, 모든 사람은 좋은 관계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다. 넷째, 누구나 재능이 있으며 그 재능이 발현되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다섯째,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여섯째, 인간은 통합적 존재다. 일곱째, 우리는 진정한 자아로 살아가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 연습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교실에서 발화의 주체가 개인이나 소수에 집중되는 것과 달리, 서클에서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발언권을 가진다. 이로 인해 서클로 대화하는 학교는 주체적이고 민주적인 배움의 공간과 그런 공동체 형성이 가능하다. 목공과 농사를 통해 자연과 몸의 평화적 관계를 맺은 학생들은 상호연결성과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서클로 서로 대화하며 공동체 구성원과 평화적 관계를 맺는다. 서클은 코로나 시대에 거리두기와 방역으로 인해 물리적 거리감 뿐 아니라 심리적 거리감을 경험한

학습자에게 배움과 성찰을 통한 연결과 공동체성을 경험할 교육적 기회를 제공한다.

수업에서 프로젝트 활동이나 창작 작업이 진행될 때 개방성과 경계, 현대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격려하고 탐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서클은 대화를 통해서 안전한 환경을 구성하고 점차 견고하게 만들어 준다. 이러한 환경에서 학생과 교사에게는 주제를 매개로 하여 서로 만날 수 있는 공동의 공간이 형성된다. 수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숨겨진 용이를 발견하며, 상대방의 행동과 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간다. 수업의 여정과 마무리에서 나누는 대화를 통해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원을 이루면서 동등한 위치에서 눈을 맞추고 생각을 모아가며 함께 배우고 성장한다. 이처럼 노작과 서클 활동은 코로나로 인해 상실된 가치와 관계를 복원하고 개인의 마음발을 다지고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학생들이 직접 발을 일구고, 나무라는 친환경 소재를 다루는 것은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이 모두 연결된 세상에서 살고 있음을 몸으로 경험하는 교육 활동이 되며, 서클은 공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대화의 장으로 기능한다.

노작과 서클을 통한 인성교육은 실행과 나눔이라는 유기적 연결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인성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마음발을 다지고, 안전한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 정창우(2015: 119-120)는 핵심 역량이 뚜렷하게 정의하는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서 인성 역량이 수행 관련 능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는 인성교육을 위한 핵심 역량이 지식과 기능만이 아니라 가치와 태도를 포함한 인간의 총체적인 역량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인성교육의 궁극 목적으로서 앎과 실천이 연계될 수 있도록 '수행 관련 능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DeSeCo 프로젝트에서 정의한 '도구 활용 능력',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에 중점을 두고, 인성수업의 효과를 측정한다.

2. 인성수업을 위한 공간

노작과 서클이 중심이 된 인성수업은 기본적으로 주제 중심의 통합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수업은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행복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누리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화이트(White, 2011: 135)에 의하면, 잘살을 위한 교육은 기존 교육과정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교사는 노작과 서클이 중심이 된 수업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전심으로,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신이 준비하는 수업의 목적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수업 방법을 정하고 배움의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창작 활동을 위해서는 개인과 그룹이 수행할 수 있는 활동과 프로젝트를 적절히 분리하여 구성한다. 개인별 작업은 단원에 필요한 개념이나 원리를 익히는 활동으로 계획하며, 팀 프로젝트는 각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공동의 작업을 진행하도록 설계한다. 공동창작 공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에게 큰 그림을 제시하고 구성원간 상호작용을 장려하고, 진행 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언을 하는 것이다. 이 때 중요한 점은 즉각적인 결과를 얻기 위하여 교사가 학생의 프로젝트에 너무 깊이 관여하거나 시간에 쫓겨 프로젝트 자체가 중간에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노작을 통한 교육은 기술을 숙달하는 시간이 필요하며, 착오와 실패를 통해서 다음 단계를 대비하고 개선책을 찾을 수 있으므로 결과물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과정 중심으로 진행되도록 수업을 구성해야 한다.

수업이 진행되는 모든 곳은 교수-학습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학교에서 교육 현장을 언급한다면 일반적으로 교실, 과학실, 미술실, 음악실, 운동장, 체육관 등을 떠올릴 것이다. 그렇다면 인성 수업을 위한 교육 공간은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하는가? 반다이크(Van Dyk, 2003: 156-157)에 따르면, 가르침은 복잡하고 상호 연관된 맥락 속에서 진행된다. 교실 활동은 고립되고 독립적이며 분리된 실체가 아니라 더욱 큰 망으로 연결된 상호 관계적인 전체이다. 파머(Palmer, 2000: 160-165)는 배움의 공간에는 세 가지 주된 특징, 즉 개방성, 경계 그리고 환대의 분위기가 있다고 하였다. 개방성은 공간이 갖는 상식적 의미로 무지에 대한 두려움을 진리를 향한 용기로 바꾸고, 진리가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장애물을 치우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방성의 의도가 변질되지 않도록 경계를 견고히 하는 것이다. 환대란 갈등과 새로운 생각들이 개방적이고 주의 깊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를 말한다.

Ⅲ. 연구 방법

오늘날, 인성 교육은 점차 태도, 관계, 가치를 넘어서 창의성, 관계, 소통 능력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는 인성이라는 영역이 지성과 감성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고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의 인성 교육은 복합적 성격을 가지며, 꾸준히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몰입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개발되어야 한다.

1. 노작과 인성 중심의 인성수업모델 설계

인성 수업이 사람의 마음을 교육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먼저 마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스피노자(Spinoza)의 사상을 계승한 인지과학자들은 마음의 위치와 작동 원리에 대해 신뢰성 있는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스피노자에 대한 들뢰즈(Deleuze)의 해석은 표현으로서의 속성을 다시 검토하고, 능동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실존을 자각할 것을 주장한다(Deleuze, 2019: 45). 그런 점에서 유추와 추론이 뒤섞인 리좀 인지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상황적 지식과 해석을 만들어 낸다(박정애, 2016: 12). 뿌리 부분의 줄기 식물을 의미하는 리좀은 특별한 주체를 상정하지 않고 수평적으로 확장되어 간다. 이는 노작을 통해 몸을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마음을 탐색하고 서클을 통해 여러 마음들이 서로 연결되는 마음밭을 만들고자 하는 본 연구의 의도와 상통하는 지점이 있다.

다음으로, 마음은 어떤 교육을 통해서 발달하는가? 마음과 관련된 교육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교육의 본래 목적으로써 인간의 마음과 정신을 기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현대 사회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역량 중심 교육으로 개인의 전인적 교양을 키우는 것이다. 주지주의는 오로지 마음의 합리적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반면, 물리주의는 마음을 기능적으로 봄으로써 교육적 의미를 퇴색시킨다. 이러한 현실을 방치하면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립하지 못한 채 마음에 관련된 지식을 가르치거나 배우는 우를 범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가드너(Gardner, 2017: 25-27)는 훈련된 마음, 종합하는 마음, 창조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윤리적인 마음을 제시함으로써 마음교육의 5단계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훈련된 마음은 전문가

가 되기 위한 배움의 단계이다. 이어서 종합하는 마음은 다양한 정보를 분별하고 가치 있는 형태로 재구성하는 능력이며, 창조하는 마음은 훈련된 마음과 종합하는 마음을 토대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마음들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과 노동의 본질과 가치를 깨닫고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윤리적인 마음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이러한 마음들을 갖기 위해서는 땀 흘려 수고하고 부지런히 일함으로써 정직하게 결실을 맺는 노작수업이 효과적일 수 있다.

가드너가 제시한 마음의 훈련 과정은 노작과 서클 중심의 인성수업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학생들은 수업의 내용으로 생명의 구조와 자연의 순환을 이해하고, 방법적 지식으로 파종과 목공 기술을 익힌다. 둘째, 학생들은 밭을 가꾸고 작물을 기르기 위해, 목재를 다듬고 지주대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탐색과 숙련의 시간을 갖는다. 셋째, 어떤 학습 방법이 자신에게 맞는지 확인한다. 어떤 학생은 경험을 통해서 잘 배우고, 다른 학생은 글쓰기와 말하기를 통해, 또는 예술적 표현이나 숙련된 전문가와의 일체감을 통해서 더 잘 배우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양한 접근은 이해한 바를 응용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더욱 잘 발휘된다. 이 수업에서는 서클이라는 대화의 장을 추가하여 자신이 이해한 바를 설명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눔으로써 이해의 정도를 확인하고 이해를 응용하려는 시도를 격려 받게 된다

2. 질적 연구를 통한 인성 효과 측정

본 연구는 노작과 서클 활동을 통해서 코로나로 인해 상실된 가치와 관계를 복원하고 이로 인해 개인의 마음발과 공동체의 회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직접 밭을 일구고, 나무라는 친환경 소재를 다루면서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을 기르고 협업 능력을 키우게 된다. 그리고 인성 함양에 필수적인 자아 존중과 성찰 능력, 타인과의 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서클이라는 안전한 장에서 공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화를 나누게 된다. 이를 역량으로 환원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도구 활용 능력’,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에 중점을 두고, 인성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확인한다. 이를 위한 질적인 검증은 다음과 같이 실시된다.

먼저, 노작 수업에서 발생하는 현안과 구성원 간 상호작용, 학생 개인의 배움의 경험을 이해하고 분석함으로써 인성교육의 효과를 파악한다. 서클 대화와 같은 자료 수집은 매 수업마다 진행하며, 서클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행과 반응 과정을 파악하고 분석한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서클은 온오프라인 수업에서 모두 실행할 수 있으나 어느 상황에서나 수평적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서클에서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학생 및 교사와 심층면담을 진행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수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찾게 된다.

심층면담은 수업에 참여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 윤리 원칙을 준수하여 진행한다. 면담의 질문 문항은 창의적 활동과 소통능력, 자율성의 발달 과정과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항목들로 구성된다. 연구 대상이 중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 면담으로 진행되는 원칙으로 하되, 수업을 진행한 교사(연구원)와 면담에 지원한 학생들이 2~3명이 짝을 지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는 면담자와 피면담자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수업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공유하고 재구성하기 위함이다. 면담의 결과물인 지식은 면담자와 피면담자에 의해 공동으로 만들어지며, 그들의 대인 관계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다(조영달, 2015a: 44-45). 모든

면담 상황은 영상이나 음성으로 기록되고, 분석을 위하여 전사된다. 연구자는 학생의 답변 내용을 수집 및 분류하고 비교 분석하여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한다.

수업 관찰은 수업의 진행과정 중 도입, 전개, 마무리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반응,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관찰하고 자료를 수집한다. 관찰자는 본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연구원이 진행한다. 연구자는 교실 현장에서 인식되기는 하지만, 연구자로서 관찰 대상과 관계를 맺을 뿐이다. 즉, 관찰 대상인 교사와 학생과 상호작용을 하기는 하지만 연구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기록에 할애한다. 다른 질적 연구와 마찬가지로 수업 관찰에서도 신빙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관찰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시 복제될 수 없기 때문에 타당성의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면담의 경우와는 달리 관찰은 주관적인 해석의 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기 쉽다. 관찰 상황을 지나치면 그것을 재현하거나 다시 관찰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찰자의 주관성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조영달, 2015a: 131).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연구자들이 함께 연구하고 관찰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오류를 제거하고 편협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다양한 교육 활동이 통합되어 운영되는 본 수업에서 각 전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관찰자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성되는 학생들의 느낌, 표현, 소통 양식 등에 초점을 맞추어 노작을 통한 마음발의 정립과 공동체의 의미를 탐색한다. 이와 함께 각 수업에서 제시되는 주제를 탐구하고 노작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변화되어가는 학생들의 반응을 관찰하고 수집함으로써 새로운 인성교육의 개선점을 찾고 본 수업이 교육현장에 정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Ⅳ. 인성수업 모델과 수업 실제

1. 수업의 목표

본 수업에서는 먼저 노동을 통해 일의 가치를 배우고 섬을 누리는 법을 연습함으로써 창조성의 원리를 경험하고 주체적인 삶을 준비하는 마음발을 형성한다. 다음으로 서클을 통해 건강한 공간을 만들고 협동과 자주를 강조하는 공동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안전한 공동체를 회복한다. 이를 통해서 자연의 순환과 생태 개념을 이해하며 인간과 자연의 상호 관계와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더불어 살아가기를 실천한다.

2. 수업의 운영 방안

본 수업은 기독교대안학교의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1개 학년 총 50~54명의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수업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교사는 총 5명으로 성경, 미술, 목공, 과학 교과를 담당하고 있으며, 회복적 교육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교사가 서클의 질문과 진행 방식을 기획한다. 수업은 1년 과정으로 학교의 전체 교육과정에 편성되며, 계절의 순환에 맞춰 단위별 교육계획이 제시되고 그룹별로 농사와 목공, 과학-예술 활동으로 순환하며 참여하게 된다. 주당 4차시로 진행되는 노작과 서클 중심의 인성수업은 코로나 상황에 대비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 양쪽에서 모두 수업이 가능한 블렌디드 러닝으로 구성된다. 이를 반영한 계절 및 월별 수업계획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계절 및 월별 수업계획

계절	월	인성 역량	교육 활동	
			오프라인	온라인
봄	3월	마음밭 가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사 일정 안내하기• 좋은 땅과 마음밭의 공통점• 퇴비 주기 / 감자 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에서 가꾸는 상자 텃밭• 밭 디자인하기• 온라인 노작일지 만들기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잎채소, 당근 씨앗 뿌리기• 밭아기 / 울타리 만들기• 목재 다루기 / 옹이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밭아기: 싹 틔우기• 지구계: 생명체가 사는 조건• 집 가구에서 옹이 찾기
여름	5월	마음밭 가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매기, 솟아주기• 천연농약 만들어 살포하기• 지주대 구조물 설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순 파주기• 천연농약의 제작 원리• 지주대 구조물 디자인하기
	6월		서클 활동	
	7월	관계,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공 의자 만들기• 수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주대 구조물 모형 만들기• 수확하기
			공동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확하기• 여름농사 마무리하기• 목공 의자 만들기
		서클 활동		
가을	8월	주체성 존중, 섬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을 밭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자 텃밭 준비하기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 배추 모종 심기• 천연농약 제조해서 살포하기• 생물의 다양성 ‘방주 프로젝트’ 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주 프로젝트’ 구상 및 제작• 농사와 연계된 과학 탐구<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기 화합물 구조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물의 다양성 ‘방주 프로젝트’ 설치• 추수와 감사의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주 프로젝트’ 설치• 수확하기
			서클 활동	
겨울	11월	나눔, 성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추, 무 수확하기• 김치 만들기• 이웃과 나눔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확하기• 나눔 캠페인 자료 만들기• 온라인 나눔에 참여하기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 돌아보기• 밭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노작일지 정리하기
	서클 활동			

3. 수업의 방법

노작과 서클이 중심이 된 인성수업은 주제 중심의 통합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수업은 학생들이 행복을 누리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과정이 가치 있게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전심으로, 성공적으로 교육 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수업의 목적과 내용을 설정하고 그에 적합한 수업 방법을 정해야 한다. 수업 방법에 있어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블렌디드 러닝 방식의 노작과 서클 활동을 계획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는 수업 환경을 구성한다.

1) 노작과 서클을 통한 마음발 교육

학습자를 능동적인 참여자로 보고 학생들의 흥미, 호기심, 관심, 욕구 등을 반영한 수업을 설계하고 진행한다. 전체적인 수업의 틀은 메이커 교육의 방식을 유지하면서 노작과 연계된 과학 기술과 창의적 활동을 융합하여 수업을 구성한다. 학생들이 땀 흘려 수고하면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그 결과를 떠나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며, 전문적인 지식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수업의 실제적인 사례로 학생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유기비료 제작 원리와 친환경 농법에 관한 지식을 배우고, 생명의 다양성과 신비함을 접하면서 관리자로서의 책임감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끈기와 성취감, 문제 해결력 등은 마음발을 다지는 데 밑거름이 된다. 마음발이란 마음을 쓰는 본바탕이다. 현행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주로 덕목과 습관 형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 연구의 핵심은 성경의 토대 위에서 좋은 성품과 태도, 습관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마음발을 기경하는 것이다. 성경의 비유는 좋은 땅에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는 과정이 한 사람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과 유사함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목공을 통해 학생들은 나무의 용이를 발견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용이를 살피고 지켜줘야 함을 알게 된다.

2) 블렌디드 수업을 통한 동등한 참여

본 수업은 오프라인 상황에서 주로 진행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온라인으로 전환할 대비를 갖추고 있다. 코로나의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컨디션이 저하된 경우, 전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 학생 개인이 재택 수업을 해야 할 가능성은 상존해 있다. 이를 고려하면, 온라인 수업은 불확실한 교육 여건에 대비하여 학생들에게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는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 수업 진행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온라인 화상회의 도구를 활용하여 서클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소수의 인원이 재택을 할 경우에도 컴퓨터 화면을 중간에 배치하여 서클에 참여할 수 있다. 둘째, 구글 문서나 프레젠테이션으로 문서를 공유하여 글쓰기 활동을 하게 되는데, 수업에 대한 소감이나 공부한 내용을 글로 표현하여 친구들과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고받게 된다. 셋째, 온라인 디자인 제작 툴을 이용하여 레이아웃이나 디자인 작업을 팀 활동으로 실시한다. 캔바(Canva)와 같은 웹사이트에서 만든 디자인 초안을 공유하고 함께 편집하거나 댓글로 피드백을 남긴다. 이외에도 패들렛(Padlet)과 같은 온라인 메모지를 활용하여 자료를 올리거나 의견을 게시할 수 있다. 넷째, 농사와 목공 이론을 소개하고 텃밭의 상황을 자세히 안내하는 브이로그를 직접 촬영하고 편집한 후에 학교 계정에 올려서 함께 시청하고 소감을 공유할 수 있다. 이처럼 블렌디드 수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확연히 구분 짓는 방식이 아니라 누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수업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V. 노작과 서클 수업의 인성 함양 효과

본 인성수업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개인의 마음발 형성과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연간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었으며, 수업에 참여한 전체 51명의 학생들 중에서 1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서클 활동에 대한 수업 관찰을 실시하였고, 여기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다. 수업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단계는 연구가 진행된 실제 교육과정과 서클 활동에 대한 결과와 관찰, 심층면담에 대한 분석으로 이어진다.

1. 연구 대상 수업

전체 교육과정에서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총 7주 동안 진행된 수업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노작과 서클 중심의 인성수업은 농사라는 공동 생산 활동을 통해 경작과 수확에 이어서 농작물 포장과 판매의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목공 수업은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공생과 자연의 순환에 대해 살펴보고 천연자원인 나무를 다루고 가공하는 기술을 숙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기간에 학교의 밀접접촉자 발생 상황과 국가의 방역 조치로 인해 온라인 수업으로 2회 전환되었다. 각 주차별 수업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주차별 수업 내용

일정	차시	수업 방식	수업 내용
5.28	1, 2	오프라인	농사(김매기, 숨어주기, 지주대 설치하기) - 목공(나무 의자 만들기) - 서클 활동
6.4	3, 4	오프라인	서클 활동 - 농사(잡초 뽑기, 지주끈 연결하고 묶어주기) - 목공(나무 의자 만들기)
6.11	5, 6	온라인	서클 활동(Zoom 회의) - 브이로그 영상으로 농사 기술 배우기 - 소감문 작성하기
6.18	7, 8	오프라인	<우천> 서클 활동 - 농사(밭 점검하기, 배수로 만들기, 지주끈 묶기) - 목공(나무 의자 만들기)
6.25	9, 10	오프라인	서클 활동 - 농사(하지 감자 수확하기, 감자 포장 및 판매하기) - 목공(나무 의자 만들기)
7.2	11, 12	오프라인	서클 활동 - 농사(방울토마토, 고추, 가지 수확하기, 새참 먹기, 잡초 뽑기) - 목공(나무 의자 만들기)
7.9	13, 14	온라인	온라인 퀴즈대회(카훗) - 서클 활동 - 소감 나누기

2. 서클 활동 관찰 결과 분석

1) 서클 활동 요약 및 소개

첫 서클 활동에 참여한 연구 대상 학생들의 반응을 감안하여, 연구진은 매주 농사 및 목공 활동에 앞서 서클 활동을 25분 정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초기 계획으로는 연구를 앞두고 사전 설문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서클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였고, 연구에 자원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으로 대상을 확대하였다. 각 주차별 서클의 주제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주차별 서클 주제

일정	참여대상	서클 진행자	서클 주제
5.28	연구 참여 학생	공동 연구원	노작 및 서클 중심의 인성수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배움과 앞으로의 기대 나누기
6.4	전체 학생	교과교사 (농사,목공,과학)	서클의 리듬을 익히며, 서로 알아가고 관계 형성하기(1)
6.11	전체 학생	공동 연구원	(온라인 수업) 코로나19가 내 삶과 배움에 미친 영향
6.18	전체 학생	교과교사 (농사,목공,과학)	서클의 리듬을 익히며, 서로 알아가고 관계 형성하기(2)
6.25	전체 학생	교과교사 (농사,목공,과학)	서클의 리듬을 익히며, 서로 알아가고 관계 형성하기(3)
7.2	전체 학생	교과교사 (농사,목공,과학)	서클의 리듬을 익히며, 서로 알아가고 관계 형성하기(4)
7.9	전체 학생	교과교사 (농사,목공,과학)	(온라인 수업) 성찰과 나눔을 통해 한 학기 돌아보기: 수업을 통해 배운 것들

2) 서클 활동 결과 분석

학생들은 매주 노작 활동을 앞두고 서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기분에 대해 나누고 다른 참여자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서클에서 나눈 대화 내용은 구술로 진행되는 인터뷰와 유사한 형식으로 음성 및 영상으로 기록하고 이후 전사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첫 번째 서클에서 제시된 질문과 이에 대한 응답을 요약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서클 활동 (2021. 5. 28)

질문	응답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였음)
1. 노작 수업에서 기대하는 나의 모습을 긍정형용사로 붙여 나를 소개한다면?	열매 맺는, 여러 활동을 하면서 다 같이 성취감을 느끼고 싶은, 성취감을 누리고 싶은, 다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나도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창의적인 수업을 바라는, 서로간의 관계와 배움도 깊어지고 싶은, 은사와 재능을 개발하는, 함께 보람찬을 느끼고 싶은, 모든 시간을 통해 그 속에서 뿌듯함을 느끼고 싶은, 노작수업을 처음 하면서 기대도 되고 힘들기도 했지만 책임감 있는,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은, 비정상적으로 나빴지만 착해지고 싶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혼자 있고 싶다고 이야기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보람찬을 느끼는, 스트레스도 풀리고 속도 풀리는 느낌이었는데 샘플수업 하면서 맘을 내고 스트레스 풀리고 속이 뽕 풀리기를
2. 봄학기(3, 4월)에 노작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것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무슨 색이며, 그 이유는?	파란색, 하늘을 봤을 때 마음이 편안해짐. 이 수업은 가장 마음이 편안하고 재미있음 연두색, 노작 하는 동안 풀도 있고, 색깔이 안정됨 노랑색, 다른 수업보다 긴장이 덜하고 설렘, 기대하는 맘이 큼 검정색, 봄학기 동안 중학교도 처음이고 친구도 대부분 처음이라 어울리기 힘들어서 하얀색, 다 처음이니까 새로운 도화지를 채우는 갈색, 노작수업하면 밭이 갈색이라 이 색을 선택함 초록색, 밭에서도 보는 게 풀 같은 거고, 처음 만난 친구들과 하는 게 푸릇푸릇해서 갈색, 곤충과 거미를 좋아함, 거기서 봤던 거미가 갈색, 살면서 가장 많이 보는 색 빨간색, 선생님이 처음에 노작 시작하며 마음밭 이야기 하셨는데, 마음밭이 밭처럼 가꿔져 가는 의미에서, 마음을 떠올리게 하는 색깔 녹색, 작물이 자람. 내 마음밭에서도 잘 가꿔져서 잘 자랐으면 검정색, 노작은 같이 하는 건데 이기적으로 땡땡까 놀아서 검정색, 모든 색이 합쳐지면 나오는 색, 우리도 합쳐지면 베이지색, 노작을 하면 자연의 여러 색을 볼 수 있음. 긍정적인 느낌을 줘 하얀색을 생각했는데, 맘이 덮여져서. 또 자연의 모든 색깔이 섞여 묘한 색을 이룸
3.여름학기(5~7월)에 노작활동을 통해 내가 기대하는 것과 그 이유는?	여름이 되면 비가 많이 와 밭에 물이 많이 고일 텐데 물 빼는 작업이 재밌어서 이를 많이 했으면, 노작수업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맘을 홀리며 마음을 다잡기, 친구관계 회복, 삽질 많이 하는 것, 기대하는 것은 딱히 없고, 이 정도면 완벽, 마음밭 가꾸기, 채소 자라고 밭이 예쁘게 가꿔져 가고 먹을 수 있기, 목공 작품 완성해서 밭에 들여놓을 수 있기를, 친구들 마음속에 벌레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길, 노작하며 걱정을 날려버릴 수 있길, 여름이라 날씨가 더워질 텐데 밝이라 더울 텐데 재미있게 잘 했으면,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물만 줘 식물을 자세히 못 봤는데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 잘 가꾸기, 풍성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열매 맺음, 리더십, 혼자 밭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밭을 가꾸는 것, 활동을 통해 서로 협동.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범위 넓어짐. 사람이 친절하게 바뀌기를

이와 같이 첫 서클에 참여한 후 학생들이 한마디로 나눈 소감은 다음과 같았다. “지루했음, 모두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특별함, 확인, 서로 생각을 나누고, 이해를 하는 것, 해봤던 거라 익숙했던, 어색한 만남, 새로운 만남, 소중한 시간, 싫은 새로움이 아닌 못 겪은 거라 어색한

새로움, 소중한 시간,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 새싹”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는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진지한 태도로 접근한다는 것이었다.

연구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 수업이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연구 기간 동안 온라인 수업을 두 차례 진행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교내 구성원의 밀접 접촉자 발생으로 인한 학교 단위 조치였고, 두 번째는 4차 대유행으로 인한 교육 당국의 결정이었다. 첫 번째 온라인 수업은 농사 브이로그 영상을 보고 참여하는 활동과 줌 서클 활동으로 나뉘지는데, 서클에서 나눈 대화는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온라인 서클 활동 (1차, 2021. 6. 11)

질문	응답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였음)
1. 같은 학교 학생의 가족이 확진자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마음과 몸의 상태는?	두려움, 안심, 경계심이 생김, 실감이 남, 첫 온라인 수업이라 떨림, 무서움, 걱정 가운데 온라인으로 전환되서 즐거움, 아무 생각 없음, 조퇴해서 기쁨, 코로나 트라우마 재연, 학교에서 놀지 못해 아쉬움, 온라인 수업이라 좋지만 당황스러움
2. 코로나로 내가 잃은 것은?	여럿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한 달에 한 번 여행수업 같은 재미있는 계획을 실행하지 못한 것, 6학년 내내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 몸으로 하는 것을 못하게 된 것, 많이 힘들었음, 코로나로 인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규칙들을 조심스럽게 지켜야 하는 것, 자유를 잃음, 여행이나 친구들과 함께 재밌는 것, 여러 명이 모일 수 없다는 점, 재미나 평소에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제한, 친구, 신앙, 여행, 일상, 친구 관계, 밥 먹으며 이야기하기, 6학년의 시간,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는 시간, 평생 간다는 6학년 친구를 많이 못 사귀
3. 코로나로 내가 얻은 것은?	마스크를 쓴 친구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관찰력, 신앙의 성장, 모든 것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는 마음을 가짐, 더 많은 추억과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 점, 내 성격을 알게 됨(집에만 있으면 안되는구나...), 마스크는 내 방패라는 걸 깨달음, 혼자 있는 지루한 시간, 조금의 휴식 시간

위 서클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으로 ‘오늘 서클이 어땠는지’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은 다음과 같았다. “색다르게 줌으로 서클을 할 수 있어서 새롭고 재미있었다.”(전체 학생 응답 중 57%), “재미있었다.”, “코로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고 온라인으로 마스크를 벗은 친구들의 모습을 보아서 좋았다.”, “온라인이어서 어떻게 할지 걱정도 됐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내 생각을 많이 털었고 집중된 것 같다.”, “코로나 시기를 어떻게 보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라고 응답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코로나 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학교는 전체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였다. 본 인성수업에서 두 번째로 맞이하는 온라인 수업이었으며, 공교롭게도 여름방학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진행된 활동이었다. 이 시간에는 봄과 여름에 진행된 노작활동에 대한 소감을 나누었으며, 서클에서 나눈 대화는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온라인 서클 활동 (2차, 2021. 7. 9)

질문	응답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였음)
1. 농사 활동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는 성취감, 식물과 노작에 대한 배움, 너무 더워서 힘들었음, 삽질이 재미있었음, 토마토와 감자가 맛있었음, 감자를 캐도 캐도 계속 나오는 게 신기했음, 잡초를 뽑고 삽질하며 물을 빼는 것이 재미있었음, 스트레스가 풀림, 탐스럽게 열린 식물이 나를 유혹했음, 새로운 경험, 비가 많이 와서 힘들었음, 농사에 관심이 있어서 재미있었음, 벌레가 많아 힘들었음, 벌레가 별로 없어서 좋았음
2. 목공 활동	조별로 함께 해서 좋았음, 처음보다 기계를 잘 다루게 되어서 좋았음, 목공 도구들이 위험했는데 아무도 다치지 않아서 감사했음, 평상시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어서 좋았음, 원래 만드는 것을 좋아해 재미있게 할 수 있었음, 친구들과 함께 해 좋았음, 평소에 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해서 좋았음, 팻말을 만들 때 실패했는데... 실패를 통해 배워서 좋았음, 팔을 다쳤는데 친구들이 내 뭇까지 해 줘서 고마웠음

3. 심층면담 결과 분석

1) 면담 질문 구성

연구에 자원한 중학교 1학년 1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기 위해 질문을 구성하였다.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고 수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면서 문항이 중복되지 않도록 범주화 하였다. 면담 문항은 아래 <표 7>과 같다. 학교 방역을 위하여 학생들은 방과 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면담에 참여하였다.

<표 7> 심층면담 질문

<p>학생에 대한 질문</p> <p>1-1. 평소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것과 직접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 중 어떤 수업을 선호하나요?</p> <p>1-2. 평소 혼자 학습하고 문제를 푸는 것과 여럿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 중에 어떤 방식을 선호하나요?</p> <p>1-3.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학교생활에 있어 특별히 달라진 점과 코로나가 학교생활에 준 영향이 있다면 말해보세요.</p> <p>인성수업의 목적과 취지에 관한 질문</p> <p>2-1. 노작과 서클은 함께 일하면서 마음을 다듬고 노동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수업의 어떤 점이 이러한 취지에 맞게 진행이 되었는지, 아니라면 어떤 점이 그러한지 말해보세요.</p> <p>2-2. 노작과 서클에서 친구들과 함께 일하고 대화하는 것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니라면 어떤 점이 그러한지 말해보세요.</p> <p>노작수업(농사와 목공) 모델에 관한 질문</p> <p>3-1. 노작수업이 진행되는 공간과 환경은 참여하기에 편리하고 안정적이었나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니라면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 말해보세요.</p> <p>3-2. 노작수업의 주요 활동인 심기와 가꾸기, 다듬기와 만들기는 끈기와 성취감,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니라면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말해보세요.</p> <p>3-3. 노작수업을 통해서 생명의 구조와 자연의 순환, 분배와 나눔에 대한 내용을 배울 수 있었나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니라면 어떤 점이 그러한지 말해보세요.</p> <p>3-4 노작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간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장점과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p>
--

서클수업 모델에 관한 질문

- 4-1. 서클수업은 자신과 친구의 감정과 기분을 전달하기에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였나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니면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 말해보세요.
- 4-2. 서클수업은 구성원들이 서로 유대감을 형성하고 수업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데 도움을 주었나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니면 어떤 점이 그러한지 말해보세요.
- 4-3. 서클수업은 공동작업에 참여하는 학생, 교사를 연결하고 서로 격려하고 탐구하는 공간과 환경을 형성하였나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니면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말해보세요.
- 4-4 서클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간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장점과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인성수업의 효과에 관한 질문

- 5-1. (도구 활용 능력) 친환경적인 공간에서 자원의 흐름과 쓰임새를 파악하고 도구를 다루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길러졌다고 생각하나요?
- 5-2.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친구와 소통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길러졌다고 생각하나요?
- 5-3. (자율적 행동 능력) 서클 대화, 생산, 제작, 공유 활동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행동을 선택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길러졌다고 생각하나요?
- 5-4. 이 수업에서 어려운 점이나 힘들었던 점, 문제점이나 앞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2) 면담 내용 분석

학생들의 심층면담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직접 경험하고 협력하는 수업 방식을 선호한다고 응답했으며 초등학교에 이어서 중학교에 진학해서도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음에 대한 불만과 안타까움을 토로하였다. 이런 답변은 두 번째 범주인 본 인성수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만족도로 이어졌는데, 학생들은 노작과 서클이 모두 마음을 다듬고 공동체성을 돌아보는 데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대답하였다.

수업 모델과 인성수업의 효과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분석하면 학생들의 응답에서 수업의 효과뿐만 아니라 소통과 표현 능력의 향상을 성취와 관련해서 보았고, 사소한 관찰에서 시작하여 재료와 도구를 활용하는 단계로 발전하는 것을 보고 배움이 연결되고 확장된다는 것을 이해하였다. 학생들은 또한 공동 작업과 대화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고 있음을 답하였다. 이에 따라서 심층면담의 핵심어를 수업의 효과, 학습자의 성취, 배움의 확장, 공동체 의식에 두고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수업의 효과와 관련하여, 학생들은 노작이라는 신체 활동을 통해 자유로움, 배려, 끈기, 문제해결력을 길렀다고 언급하였다. 학생들은 더운 여름날에 땀을 흘리고, 비를 맞으면서 호미와 삽을 손에 들고 농작물을 심고, 거두는 활동을 통해 배움을 얻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목공 도구를 사용해서 목재를 다듬고, 붙이며 의자를 완성하면서 보람과 성취감을 느꼈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이론적 학습이 아니라 경험과 성찰을 통해서도 배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인성수업의 효과성을 증명하고 있다.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활동을 하니깐. 서로를 배려하면서도 자주 통하고 자유롭게 했던 것 같아요.” (김*진 학생)

“식물들이나 작물들을 이제 심고 가꿀 때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언제 애는 열매가 맺힐까 하면서 점점 더 기다리게 되다 보니까 끈기도 길러질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이렇게 결국에는 어느 순간 봤을 때 다 자라서 예쁘게 열매가 맺혀져 있거나 정말 그냥 딱 봤을 때 우와 진짜 해바라기도 잘 큰 걸 보으면 볼 때마다 뿌듯하고 성취감이 많이 느껴졌어요. 또 심었을 때 여러 가지 잡초도 많고 벌레들도 많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뭔가 토마토 키웠을 때도 자꾸 쓰러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도 다 배울 수 있어서 확실히 문제 해결력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강*나 학생)

“심은 게 많아서 심고 가꾸고 다듬고 만들기 할 때 시간도 오래 걸렸어요. 잡초 뽑기도 해도 해도 끝이 없었어요. 하다 보면 딱 봤을 때 많이 된 게 보이니까 끈기랑 성취감이 조금 키워지고 문제 해결력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해치우면 되겠다. 하는 게 좀 보였던 것 같아요.” (노*진 학생)

두 번째로 학습자의 성취와 관련하여, 학생들은 노작과 서클 활동을 통해 소통, 공감, 경청 등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자기표현능력을 향상시켰음을 언급하였다. 목공에서는 공동 작업을 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친구들의 역할을 비교하기도 하고 경험의 공유가 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임을 인지하였다. 그리고 서클에서 대화를 지속하면서 솔직하고 진지한 태도가 유대감과 연결 고리를 형성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수업에 임하는 자세를 개선하였다.

“목공을 할 때 친구들과 역할 분담을 할 때 얘기를 하게 돼요. 또 농사를 할 때, 저희 밭 구간이 있거든요. 너 거기 했네, 나도 이거 했어, 이런 것도 캬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농사할 때 제일 소통을 많이 해서 어 네 뭐 그런 능력들을 길렀다고 생각해요.” (김*윤 학생)

“처음 서클에서 딱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해야 될지 모르겠고, 생각하는 시간도 좀 필요했는데 계속하다 보니까 생각하는 시간도 좀 짧아지고 표현하는 능력도 길러진 것 같아요.” (노*진 학생)

“저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때 정리해서 말한 거나 한 번에 딱 생각을 해서 말하는 게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계속 말하다 보니까 좀 더 빠르게 생각하게 되고 정리가 한 번에 되기도 하고 친구들 얘기를 계속 들어야 하니까 확실히 경청하는 능력 경청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경청을 좀 더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강*나 학생)

“일단 이것도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상대방도 솔직해지고 저도 솔직해지면 상대방과 나의 약간 연결고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 느껴지면 그게 유대감으로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서클은 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서로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박*훈 학생)

온라인으로 진행된 서클 수업에서도 학습자의 성취는 계속되었다. 서클이 대화 중심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오프라인과 비슷한 유대감과 연결감을 경험하였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차이점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학생들 대부분이 몸으로 상호작용을 느낄 수 있는 오프라인 방식을 선호했지만, 온라인에서도 서클 수업을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자기표현능력을 구현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온라인 수업을 하면은 이렇게 주위도 산만하고 결국 인터넷이고 하니까 가끔 딴 짓을 하게 될 수 있어서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서클 수업에서 그 사실 온라인 수업하고 오프라인 수업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몸으로 하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자신의 생활을 나누고 말로 할 수 있는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결국 그 환경이 좀 산만해서 오프라인이 그래도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 학생)

“오프라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러니까 서로 마주 보면서 그 아이의 표정을 보며 그 말을 할 때 그 애가 어떤 건지를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데 온라인은 아무래도 좀 끊기긴 하지만 애들이 한눈에 보여서 좋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송*슬 학생)

“서클은 별로 달라진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서클은 온라인이 더 보기 편했다고 해야 되나. 일단은 선생님들이 화면에 뛰어드시니까 더 주제를 까먹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어서. 서클은 온라인이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엄*울 학생)

세 번째로 배움의 확장과 관련하여, 학생들은 노작의 경험을 통해 흥미를 고취시키고 배움을 확장시켰다고 응답하였다. 학생들은 노작 활동에 참여하면서 농작물을 관찰하고 재료를 살피면서 관찰력이 향상되었고, 도구의 사용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면서 창의력과 판단력이 높아졌음을 언급하였다.

“상추 관찰을 했어요. 상추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본 거는 처음이었는데, 털도 나있고, 뽕뽕뽕한 것도 있고.....이런 거는 어떻게 쓰이겠구나.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하면서 보니까 신기했고 관찰력이 좀 길러진 것 같아요. 계속 자연을 보고 목공 나무 재료를 보고, 그냥 생각으로만 했던 것들을 직접 만들어 보고 하니까 창의성이 길러진 것 같아요.” (노*진 학생)

“상추를 심거나, 무를 심거나 무씨를 보는 것 모두 진짜 처음 해봤던 것들이예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관찰할 수 있어서 좋았고 농약 같은 것도 직접 만들어서 짚어요. 솔직히 친환경 농약 같은 것도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쓸 수 있다는 게 재미있기도 하고 신기했어요.” (강*나 학생)

“일단 판단력도 빨라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떤 도구를 사용할지 고민이 많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어떤 도구를 쓸 지 결정하는 판단력도 빨라졌어요.” (강*성 학생)

네 번째로 공동체 의식과 관련하여, 학생들은 노작의 공동 작업과 서클의 말하기와 경청하기를 통해서 소속감과 책임감이 길러졌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동체 정신을 갖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일부 친구들은 공동체성을 키우는 데 있어서 자유스러운 분위기와 환경이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농작물을 키우니까 책임감도 생기고 친구들과 같이 목공에서 의자를 만들다 보니까 공동체 정신도 생겼어요.” (송*슬 학생)

“다 같이 하니까 소속감 그런 게 좀 높아진 것 같아요. 혼자서는 못하는데 다 같이 하니까 할 수 있고 옆에 있는 친구들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내가 혼자서 이 일을 끝내지 못했을 텐데 옆에 친구 때문에 이 일을 했구나? 라고 느꼈어요. 목공 같은 경우에도 목공을 할 때 혼자서만 한다고 다 만들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 만들 수 있더라고요. 농사 할 때는 혼자서 하기에 좀 힘들텐데 다 같이 하니까 재미도 있고 노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이*음 학생)

“꼭 같은 반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반 친구들 뭐 예를 들면 진짜 한 번도 대화를 안 나눠본 친구나 진짜 안 친한 친구들과도 서클로 인해서 한 번씩은 꼭 말을 들어보게 되니까 그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그 친구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아갈 수 있어서 확실히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노작도 함께 협동해서 해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확실히 친구들과 더 가까워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노*진 학생)

요컨대,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노작과 서클 중심의 인성수업을 통해서 인성과 관련된 역량을 키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도구 활용 능력은 관찰력을 바탕으로 창의력과 판단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길러졌고,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은 공동 제작 방식에 참여한 경험을 서클의 대화로 이어가면서 경청과 공감, 유대감을 형성함으로써 함양되었다. 이에 더해서 전반적으로 노동을 통해서 일의 가치와 존엄성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공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끈기와 문제해결력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수업 개발과 진행에 있어서 학생들의 선택이 제한되다보니 자율적 행동 능력에 대한 답변이 상대적으로 저조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현재 학교의 상황은 인성수업이 시작되던 학년 초와 비교해서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고려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수업을 개발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청에 부합한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노작과 서클 중심의 인성수업은 인성적 역량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마음발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동체적 활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노작과 같은 경험 기반의 수업과 서클과 같은 집단 대화 방식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 문제로 상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배경과 기본 교육과정을 완성하였고, 3월부터 시작된 수업은 7주 간의 집중 연구 수업을 통해 수업 관찰과 사후 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7월 초에 수도권 지역의 방역 조치가 4단계로 격상되었지만, 온라인 수업이 차질 없이 진행된 관계로 예정된 연구 수업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 수업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노작과 서클 중심의 인성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제 막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막 입학한 단계에 있다. 이미 6학년의 대부분을 온라인 수업으로 보냈던 학생들은 주당 4차시의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수업의 목적대로 텃밭을 가꾸면서 마음발의 원리를 이해하고 목공을 통해 재료와 도구에 대한 탐색을 실천하였다. 학생들의 반응은 매주 서클 활동을 통해 입력되어

수업 자체의 개선과 인성수업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활용되었다. 다시 말해서, 노작과 같은 경험 위주의 활동이 공동체 대화를 통해서 정리되고 공유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서클과 같은 정적인 활동이 농사와 목공을 통해 수업에 기대감과 기분을 나누는 장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노작과 서클이 상호 보완적이며 인성 수업이 단조롭고 지루하다는 인식을 깨뜨리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성수업의 교육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대적 흐름에 따른 교육 현장의 변화를 감지하고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교육을 지향한다. 이러한 변화는 일방적인 지식의 전달, 강의 중심의 수업, 평가를 위한 학습 등 기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 인성교육의 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노작과 서클 수업에 참여하는 중학생 1학년들은 초등학교의 마지막 시기를 혼란스런 상황 가운데 보낸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 몸 활동이 주가 되는 자연 속 노작 활동은 세계적인 재난 상황이 생태적 위기에서 초래되었음을 인지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생태적 감수성과 자원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정립하게 된다. 셋째, 현재 기술 수행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하는 메이커교육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이를 위한 철학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는 진로 탐색과 역량 강화라는 막연한 목표에서 흥미와 소질이 반영된 교육으로 그 범위를 좁힘으로써 학생들은 더욱 실제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되고, 실천과 기술의 습득도 중요한 학습 활동임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진로에 대한 관심을 다양화하고 학습에 대한 동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결국 학생들로 하여금 창조세계에 대한 청지기적 사명을 갖추는데 기여할 것이다.

현재 중학교 교육과정은 교과별로 분절되어 있어서 도덕 교과에서 인성교육을 전담하고 기술·가정 교과에서 노작과 같은 기술 관련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자유학년제나 창의체험 시간에 주제 통합을 일부 시도하고 있긴 하지만, 학교 교육과정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현실에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다양한 교과의 교사들이 함께 상의하여 만들어가는 노작 및 서클 수업은 융합교육의 실제적인 모델을 제공할 것이다. 수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면 한 교과나 동아리, 또는 창의체험활동으로 편성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 환경에서 모두 실행될 수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해서 노작에 참여하기도 하고, 집에서는 상자 텃밭을 기르면서 온라인으로 노작일지를 공유하고 함께 기록한다. 서클은 대면 상황에서는 거리두기를 하면서 원으로 모일 수 있고, 비대면 상황에서는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모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참여하는 수평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물론 많은 학교가 교사들을 농사 및 목공 전문가로, 서클 활동 교육가로 세우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연수와 전문학습공동체를 통해서 팀을 구성하고 교사들의 역량을 키운다면, 학교를 더불어 사는 안전한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학교가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면, 공존과 공생이라는 키워드가 교육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는 실천적 방법만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 물음을 던지고 손으로 수고하며 창작하는 기쁨을 추구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노상우 (2015). 『생태교육학』. 경기: 교육과학사.
- 박정애 (2016). “리좀 인지와 열린 교육과정”. 『미술과 교육』. 17(3). 1-18.
- 유재봉 (2020). “교육에서의 심신문제 : 심신이원론과 물리주의를 넘어서”. 『도덕교육연구』. 32(1). 1-22.
- 유재봉 · 유승민 (2020). “예술을 통한 인성수업 모델 개발 : 가면 만들기를 통한 중학생의 페르소나 인식”. 『미술과 교육』. 21(4). 113-136.
- 이근호 외 (2017). “OECD Education 2030 교육과정 조사에 따른 역량 중심 교육과정 비교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조영달 (2015a). 『질적연구방법론(학교와 수업 연구의 새 지평, 이론편)』. 서울: 근사.
- (2015b). 『질적연구방법론(학교와 수업 연구의 새 지평, 실제편)』. 서울: 근사.
- Baillet, D. (1983). *Freinet-praktisch : Beispiele und Berichte aus Grundschule*. 송순재 역 (2002). 『프레네 교육학에 기초한 학교 만들기』. 전북: 내일을여는책.
- Boyes-Watson, C. & Pranis, K. (2015). *Circle Forward : Building a Restorative School Community*. 이병주 · 안은경 역 (2020). 『서클로 나아가기: 교육공동체를 회복하는 서클 레시피 112』. 충남: 대장간.
- Deleuze, G. (1969). *Spinoza et la problème de l'expression*. 현영종 · 권순모 역 (2019). 『스피노자와 표현 문제』. 서울: 그린비.
- Evans, K. & Vaandering, D. (2016). *The Little Book of Restorative Justice in Education*. 안은경 역 (2020). 『회복적 교육』. 충남: 대장간.
- Gardner, H. (2006). *Five Minds for the Future*. 김한영 역 (2017). 『지능교육 넘어 마음교육』. 서울: 사회평론.
- Palmer, P. J. (1993). *To Know As We are Known*. 이종태 역 (2000).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서울: Ivp.
- Polany, M. (1966). *Tacit Dimension*. 김정래 역 (2015). 『암묵적 영역』. 서울: 박영사.
- Sandel, M. J. (2020). *The Tyranny of Merit*. 함규진 역 (2020). 『공정하다는 착각』. 서울: 미래엔.
- Van Dyk, J. (2000). *The Craft of Christian Teaching: A Classroom Journey*. 김성수 역 (2003). 『가르침은 예술이다』. 서울: Ivp.
- White, J. (2011). *Exploring Well-being in Schools*. 이지현 · 김희봉 역 (2014). 『잘삶의 탐색』. 경기: 교육과학사.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47547&ref=A>. (검색일 2021.3.26)

논찬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마음발 형성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작과 서클 중심의 인성수업 개발	발표자	유승민, 유재봉, 안은경
		논찬자 (소속)	김은영 (인천 신흥중 교사, 회복적생활교육센터 연구원)

코로나 시기를 위기와 도전의 시대로 보며 교육의 기본을 다시 묻는 연구자들의 질문을 염두에 두고 들었다. 피조물인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이미 곳곳에서 그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지만 사실 교육기관에서는 '수업'이라는 학교의 책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적응하느라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일반 공립학교에서는 연구자들의 염려처럼 인간의 기본 욕구로 본 관계와 소통, 협력의 가치는 코로나라는 팬데믹 앞에서 뒷전이 되었고 오히려 공동체 안전을 위해 철저한 거리두기 실천을 강조하는 교육이 2년째 흘러가고 있다.

이런 보통의 공립 학교에게 샘물중학교의 연구와 실천은 여러 시사점을 준다.

먼저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 제시하는 교육의 목표를 잘삶(Well-Being)으로 보고 지식,기능,태도에 더해 가치를 인식하고 창출하는 능력을 역량으로 보면서 창의적 활동과 소통 능력, 자율성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과 공간의 개발을 중요 요건으로 본 점이다.

샘물중학교에서는 이것을 농사와 목공이라는 노작의 교육과정으로, 서클을 통한 공간의 창조를 기본으로 하면서 코로나 시기의 파도를 타는 블렌디드 러닝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을 구축했다.

자연의 이치를 알아채고 인간 또한 피조물로서 생태계에서 배우고 협력해가는 존재라는 생태적 감수성은 코로나 시기가 아니더라도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태도적 가치의 중요 교육과정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농사와 목공은 그 과정으로 적합한 시도임에 이의가 없다.

서클은 듣고 말하는 대화의 과정에서 인간다움이 경험되고 확인되는 과정이다. 자연이 그렇듯 서클 속에서 학습자는 자신과 서로의 목소리를 통해 이해와 공감이 올라오고 이때 연결감과 공동체로서 소속감을 경험하게 된다.

두 번째, 학교의 존재 이유가 미래의 행복을 준비하는 곳이 아니라 현재를 누리고 감사를 찾아 만족하는 곳이라고 전제한 점이다. 화이트의 말을 인용하면서 잘삶을 위한 교육은 기존 교육과정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면서 주제통합수업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은 입시라는 한 곳으로 향해 있음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만 오랜 시간 이 사회에 굳어진 학벌주의를 외면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도 좋은 대학을 나와야 선택권도 있다.'는 부모의 불안은 학교조차도 입시를 위한 수단으로 보게 만든다.

적성과 과정 중심 평가의 취지로 시작한 자유학년제가 벌써 6년째이지만 이 교육과정이 자신을 돌보고 상호 인간다움을 회복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게다가 이 시기에도 성적을 위한 학원 수강은 지속된다.

이 시기를 공부 안 하는 시간이라고 오해하는 현상이 없지 않은 것이다. ‘공부’를 ‘성적’으로, ‘역량’을 ‘유명 대학’으로 동일시하는 현실은 자유학년제 실시 전후 크게 다르지 않음을 체감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일반 공립학교에서도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학년제와 주제통합수업 시간을 통해 농사와 목공 수업도 진행되곤 한다. 그러나 큰 차이가 있다. 샘물중학교에서 진행한 서클수업이 접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면담 내용을 보면서 서클이 노작과 노작을 연결하고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고 대상과 주체를 연결하는 통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뷰 내용에서 표현된 끈기, 성취감, 문제해결력, 소통, 표현 능력, 경청, 유대감, 솔직함, 창의성, 관찰력, 재미, 신기함, 결정력, 판단력, 책임감, 공동체 정신, 소속감, 소중함, 협동 등은 교육의 본질이 흐려지는 현실 속에서 더 강력한 목소리로 다가온다.

세 번째, 시사점은 학습목표이다. 실제 노작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이 창조성의 원리를 경험하고 주제적인 삶을 준비하는 마음발을 형성할 수 있을까 하는 호기심이 일었다. 재미있다고 재미없다고 모든 의미를 담아버리는 중학생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 과연 활동이 배움으로 이어지고, 배움과 성장을 인지하고 표현하는 정도로까지의 성장이 가능할까 하는 점이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서클 대화를 통해 내면을 비추어보고 진심이 드러나는 안전한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7차에 걸친 샘물중학교 서클 대화는 미소와 감탄을 지어내는 힘이 있다. 솔직함 속에 보석처럼 박혀있는 아름다운 성품들이 보였기 때문이다. ‘언제 애는 열매가 맺힐까, 나도 이거 했어. 이런 것도 갠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계속 말해보니까 좀더 빠르게 생각하게 되고 정리가 한 번에 되기도 하고, 상대방도 솔직해지고 저도 솔직해지면서 상대방과 나의 약간 연결고리라고 해야 하나?, 계속 자연을 보고 목공 나무 재료도 보고 그냥 생각만으로도 했던 것들을 직접 만들어보고 하니깐, 진짜 처음 해봤던 것들이에요. 혼자서 하기에는 좀 힘들텐데 다 같이 하니깐 재미도 있고 노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안 친한 친구들과도 서클로 인해서 한 번씩은 꼭 말을 들어보게 되니까.’ 등등

다소 긴장과 설렘을 안고 올라 온 시기에 성경의 토대 위에서 좋은 성품과 태도, 습관들이 자랄 수 있는 마음발을 기경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과정에서 씨앗이 뿌리를 깊게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터가 마련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좋은 마음발을 만들어냈다고는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마음발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점에서만이라도 의의가 크다. 자신의 때에 언제든 그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적과 입시라는 보이는 결과를 향해 달리는 일반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볼 때 샘물중학교는 부러운 학교이다. 이 학교를 선택했다는 것은 이미 부모와 학생이 성경에 근거한 참된 성품을 우선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보이기 때문이다. 오해나 편견일 수도 있지만 일반 학교보다는 그래도 교육의 본질을 걸어갈 여건이 되고 격려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가 샘물중학교와 일반 공립학교에의 교육 회복에 울림을 주고 힘을 부여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논찬을 마친다.